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난 30일 마감… 7개 사업단 지원

영역별 대학자율 3개·국가지원 3개·지역전략 1개 사업단
‘창의융합 제주관광·’ 사업단은 전북대·원광대와 협력기로

지난달 30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이 마감됐다. 우리대학은 7개 사업단이 사업 신청을 했다.

관련기사 4면

특성과 사업에 지원한 사업단은 대학자율 영역 3개, 국가지원 영역 3개, 지역전략 1개 등으로 총30개 학과가 참여했다. 대학자율 영역에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바이오 인재 양성사업단(대형)’,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 양성사업단(중형)’,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사업단(중형)’이 지원했다. 국가지원 영역에는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생물 다양성 기반 천연화장품산업 인재 양성사업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단’이 신청했다. 지역전략 영역은 ‘창의융합 제주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전북대 중어중문학과와 원광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와 협력해 신청했다.

대학본부는 최종 사업단 신청에 앞서 학내 예비사업단을 신청 받았다. 예비사업단 20개(50개 학과)가 지원해 내부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사업단을 신청했다.

양덕순(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은 “예비사업단에 학내 경쟁력 있는 학과를 재구

성해 최종사업단을 구성했다”며 “많은 준비를 통해 최종선정된 만큼 모든 사업단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단 선정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다.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한 2배수의 사업단에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한다.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과 내용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대학 평가(30%)와 특성화 사업단 평가(70%)로 진행되며, 평가 내용은 특성과 여건과 계획 평가로 나눠서 진행된다. 현재까지 실적과 역량을 통해 현재 여건(50%)을 평가한다.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계획(50%)도 평가대상이다.

대학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돼 우리대학은 2017년까지 입학정원 234명(10%)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원감축 가산점에서 10%를 줄여 5점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2016학년도에는 190명, 2017년에는 44명으로 나눠 정원을 줄인다.

한편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비교우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강경태 기자



13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경상대학 ‘씨울체전’에서 경영학과·경제학과 씨름대표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찾아가는 도서관’ 19일부터 5일간 열려

분실도서 대처방법 등 소개

‘찾아가는 도서관’이 19일부터 5일간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중앙도서관(관장 김홍수 통신공학과 교수)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료 대출과 반납 방법, 도서 예약 방법, 우선정리도서 이용방법, 분실도서 대체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도서 데이터베이스와 타 대학 도서관 자료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료 이용방법도 소개한다. 행사는 도서관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개최된다.

이명희 자료운영팀장은 “도서관에서는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서에게 문의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번 행사에서 평소 궁금한 점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가장 분

비는 점심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JCC그룹과 업무협약

발전기금 10억원 지원 약정

JCC(JEJU CHINA CASTLE)그룹(회장 박영조)이 최근 대학 발전기금으로 5년간 연 2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또 우리제주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지원 △산업체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중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경태 기자

‘2014 영화로 만나는 재일제주인’

20~22일 ‘GO’ 등 3편 상영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는 5월 개교기념일을 맞아 ‘영화로 만나는 재일제주인’이라는 테마로 영화상영을 개최한다. 이번 영화상영은 재일제주인의 고향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소연 기자

이번 상영될 영화는 일본 내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편견 등을 반영한 일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 3편이다.

상영작은 ‘GO’, ‘달은 어디에 떠있는가’, ‘디어 평양’이며 상영일정은 5월 20일(화) 오전 11시, 21일(수) 오후 2시, 22일(목) 오후 4시로 장소는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에서 상영한다. 박소연 기자

LINC사업단 2년 연속 ‘매우 우수’ 현장밀착형 전국 41개 대학 중 1등

최대지원금 50억9600만원 받아

신산업 개척·일자리 등서 높은 점수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 생명과학공학과 교수)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아 현장밀착형 전국 41개 대학에서 최상위 사업단으로 재선정됐다.

특히 단계평가에서 신규 지원사업단과 경쟁해 총 41개 대학 중 1등을 차지해 최대 지원금액인 50억9600만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됐다. 앞서 사업단은 1차년도에서 호남·제주권역 대학 중에서 1등을 기록해 48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은바 있다.

LINC사업단은 이번 평가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내실 있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단은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인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육성을 도입해 창의 아이디어를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지난해 10월 ‘2013 전국대학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12월에는 산학협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또 우리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300여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회사의 매출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지역 영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타 부처 신규 연구과제사업의 수요조사 대응과 공고사업 신청을 통해 가족회사 신규 국가 R&D사업 유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백 단장은 “창조경제와 교육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산업체와 학생에 대한 취업매칭, 가족회사 지원에 따른 공동성과에 힘입어 이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교직원, 올레 3코스 정화활동

2개조로 나눠 3시간 동안 벌여

교직원들이 지난 2일 올레길 3코스(은평포구~표선해수욕장) 정화 활동을 벌였다.

허항진 총장과 교직원 45명은 은평포구와 표선해수욕장 2개조로 나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정화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돌담이나 풀숲, 땅 속에 묻혀 있는 병과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 주민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

지역 주민들이 트럭으로 수거했다.

직원들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도착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올레길 정화활동을 했다. 총10km의 길을 걸으며 벌인 올레 정화활동은 마무리 됐다.

홍인기 총무과장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다”면서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서 직원들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 22일 오후 4시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22일 오후 4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국적이 외국인인 학생을 제외하고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학교·교내 축제’, ‘교내 흡연’, ‘학교 체벌’ 중 주제를 통해 하나를 선택한다.

신청기간은 오늘(14일) 오후 6시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press@jeju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3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신문방송사 행정실(☎754-2278) 유주연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 하세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표소
Polling Booth

공명선거 홍보대사
방송인 서경석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 아나운서 김소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 설

대학의 위기관리 이대로 좋은가?

『논어』「향당」편에는 마구간에 불이 났다는 말을 전해들은 공자가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傷人乎不問馬)’라고 물었다는 고사가 등장한다. 세월호 사건이 수습되고 있는 중에서도 이 고사를 떠올릴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대처 자세였다. 요컨대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부 당국을 보면서 모두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도 좋은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외신까지도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으니, 총체적인 위기관리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당국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각 대학이 말 그대로 위기를 맞이했다. 특성화를 내세운 고등교육발전방안과 지방대학육성방안이 결과적으로는 더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묻혀 조용히 마무리되는 모양새이지만, 우리대학도 대학정원 10% 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안을 기초로 대학특성화사업(CK-1)과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1)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기관리시스템과 관리역량 부족을 의심할 만한 일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이번 대학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대학본부의 초기 대응은 기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 기간에도 세부지침이 바뀌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학본부 책임자들의 말이 계속 엇갈렸다. 학내 및 국내 피어그룹별 경쟁력 분석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대학특성화사업과 구조조정은 별개라고 하였다가, 정작 학내 예비사업단 공모 과정에서 대학특성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인 듯이 말을 흘렸다. 마지막에는 대학특성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를 대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학내 예비사업단에 응모한 학과들을 조정하는 일이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원칙은 없었고, 확인되지 않는 경쟁력만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손에 보는 구조가 되었다. 정부당국의 발표를 믿었다가 정작 수학 때에는 수확도 하지 못하고 발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부의 심정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공감되었을 뿐 아니라,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 이번 특성화사업 신청 현황을 알리는 보도자료들에서도 이 사실은 확인된다. 서울소재 주요사립대에서는 아예 정원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거나, 경기인천권에서는 5.1% 감축 계획이라는데, 우리대학이 속해 있는 호남제주권은 9.2% 감축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지만, 대학본부의 구조조정에 원칙이 있었는지, 위기관리가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지난 4월 11일 교육대학 학생들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주장하며 하루 동맹휴업을 하였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 후, 신규채용 제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맹휴업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신규채용 제도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우선, 이 제도는 초등학교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일과 시간 대부분을 학생들과 학급에서 함께 생활한다. 교사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가 직접 연계되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교사의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가 심지어 급식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저학년의 경우 식사 지도가 곧 교과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만 수업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육 현실에 맞지 않고,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예비 교사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본말이 전도된 제도이다. 기획재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2014.05.08.)에 따르면, 공공기관 시

간선택제 채용 목표를 2017년까지 1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이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계 ‘내’의 논리가 아닌 교육계 ‘밖’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백년대계인 교육이 다른 그 무엇의 ‘수단’이 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게 될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 학계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범운영이 단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인증 장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허와 실을 보고서에 그대로 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현실과 교육 목적에 타당한, 교육계 ‘내’의 논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안전캠퍼스 조성’ CCTV 80대 추가설치

재난시 대피로 확보 위해 부출입문·복도 등에 설치

불편했던 출입문 폐쇄시간 사라져 학생들 긍정적 반응

범죄예방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화재시 대피로 확보 등 보안과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내 주요 건물에 CCTV 80대가 추가설치됐다.

CCTV는 각 단과대학, 공동실험실습관, 공과대학 부설공장, 교양강의동 등 총 26개 건물의 부출입문과 복도 일부에 추가설치됐다. 각 건물의 CCTV 추가 설치위치는 각 단과대학 행정실 관계자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총무과는 지난달 설치작업과 시범운전을 거쳐 추가된 CCTV를 5월부터 본격 운영했다. 추가 설치된 CCTV는 ADT CAPS가 위탁해 관리한다.

CCTV 설치 전 각 건물마다 출입

인원이 드문 야간 시간에 범죄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출입문을 폐쇄했다. 폐쇄시간에는 중앙 출입구를 제외한 다른 출입문을 닫아 통행을 제한했다.

출입문을 제한한 경우 야간 시간 범죄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야간 시간에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상시 개방하는 중앙출입문 외에는 대피로가 없다. 또 중앙출입구에 문제가 생길 시 위험이 따른다. 중앙에서 먼 곳에 위치한 사람 또한 탈출에 긴 시간이 걸린다.

이에 총무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인문대학 2호관 중앙현관에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CCTV가 설치됐다.

고양복 총무과 실무관은 “부출입문 이용을 제한할 경우 화재가 발생

하면 대피로 확보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화재시 대피로를 확보하려면 서도 범죄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부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CCTV 추가설치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수경(미술학부 2)씨는 “미술학부는 특성상 야간에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 각 과실을 항상 잠그고 다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전부터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만큼 추가설치가 반갑다”고 말했다.

박선영(원예환경전공 4)씨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방법뿐만 아니라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대피로 확보를 위해 부출입문을 열어둬서 좋다”며 “안전 문제는 예방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일어난 후의 대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추진

2015학년도 도입 예정… 타대학 운영 방법 벤치마킹 계획

대학원(원장 문성숙 국어교육과 교수)은 2015학년도부터 5년 안에 학사와 석사과정을 통합 이수할 수 있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을 준비 중이다.

본래 학위 취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학사과정은 4년(8학기), 석사과정은 2년(4학기)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달리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은 5년 안에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학·석사 학위 취득

에 일년이 줄어든다. 이 제도를 통해 성적에 우수한 학생들은 학부과정 중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학사취득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해 정원 미달사태를 방지하고 입학정원의 탄력적인 운용이 기대된다.

대학원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의 사례를 수집 분석

하고 있다.

고명찬 대학원 행정실장은 “5년제 학·석사 과정은 현재 서울대, 충북대, 전북대 등 많은 거점국립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타 대학의 사례로 무시험 특별전형이나 석사과정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 추진 전에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조교임용 우선권을 주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김용환(미술학부) 교수
‘꽃이미지’ 개인전 열어

김용환(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가 지난 1일부터 6일 동안 일곱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개인전은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진행됐다. ‘꽃이미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꽃이 가진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김 교수의 작품들은 실물과 유사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각자의 감성을 표용하고 있다.

강경태 기자



‘몰론 거 싯결랑 들어봄서’ 제주어말하기 대회 31일 개최

23일까지 참가자 모집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오는 31일 인문대학 2호관에서 ‘제8회 2014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몰론 거 싯결랑 나싯의 들어봄서’를 주제로 마련된 이 행사는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제주도민들의 삶과 문화, 자연 등 제주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말하기 주제로 정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제주대 총장상과 부상을 수여하며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지난해 열린 ‘2013 제주어 말하기’에서 북촌교 4학년 한수빈·허수진 어린이가 ‘세상 좋아졌수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초·중·고등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세부분의 시상 폭을 늘리고 참여율이

낮은 대학생부는 없었다.

강영봉 원장은 “제주어는 제주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도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제주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참가신청서는 국어문화원 홈페이지(www.malgeul.jejunu.ac.kr)나 제주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국어문화원 홈페이지, 이메일(halla2712@jejunu.ac.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754-2712, 2738.

정현 기자

김혜연(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세계가정학대회 조직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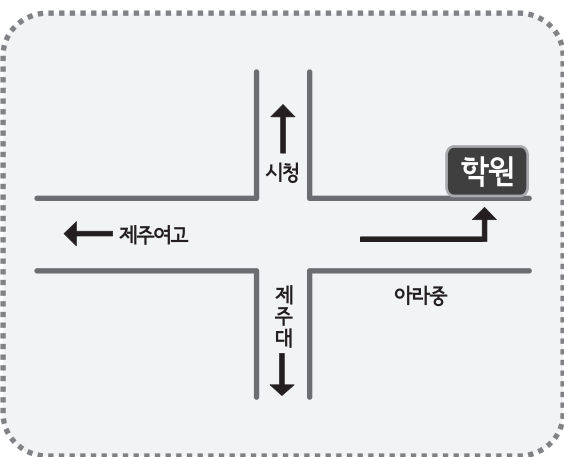
김혜연(생활환경복지학부 제주코칭리더십센터장) 교수가 지난 26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간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2014 통합학술대회’에서 2016년에 열리는 ‘2016 세계가정학대회’ 조직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세계가정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문화부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민선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도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다 음

- 주제 : 김창인 실천철학과 나의 인생, 나의 인생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
-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 : 50만원 (1명) - 우수상 : 30만원 (2명) - 장려상 : 20만원 (3명)
- 공모기간 : 2014년 05월 30일까지
- 결과발표 : 2014년 6월 20일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 앞에 게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 기타 : *응모자에게는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에서 실천철학 책자 및 원고작성요령을 배부
*응모작 수준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접수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문화교류관/박물관 1층)
☎ 064-754-8278, HP 010-3699-3210

김창인실천철학연구소

윈도우XP 지원 종료에 흔들리는 학내 보안

윈도우7 구입 예산부족·문서백업 등 신속한 교체 어려워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무인증명발급기 교체 등 대안 마련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윈도우XP 서비스 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학내 보안에 구멍이 생겼다. MS사의 지원정책에 의해 XP운영체제는 각종 버그 수정이나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의 기술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존의 XP 운영체제를 지닌 장비들은 정보 해킹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에 각 기관들은 보안강화를 위해 운영체제 교체, 신규 기자재 구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경희 정보통신담당관은 “약 10만원 상당의 윈도우7 정품을 구입해 교체를 진행하고 있어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외에도 오래된 컴퓨터들의 교체, 개인정보와 학내 문서 등의 백업 작업을 겸하고 있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원은 운영체제 교체 외에도 지난 4월 7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윈도우XP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PC데스크탑이 없이도 인터넷 웹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이는 보안 문제 해결, 관리인력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겸한다.

한편 학내 컴퓨터 시설 외에도 학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무인증명발급기 2대는 교체 예정이다.

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기자재와 등록금 납부 등 돈을 관리하는 기기들의 교체도 이뤄지고 있다. 종합서비스센터는 무인증명발급기 2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농협측은 단계적으로 ATM기기 교환을 추진한다.

농협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ATM의 폐쇄적인 시스템 특성상 은행 전산망을 바로 뚫어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ATM자체에서 보안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다”며 “하지만 금요일까지의 지시에 따라 2017년까지 윈도우XP 상위버전을 갖춘 ATM기기로 교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나눔 장터 운영

8일 교육대학 초등실과교육
전공 학생들 기금모아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교육대학 초등실과교육전공 학생들이 대구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알뜰시장을 열었다.

다. 이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시민참여형 오픈프로젝트에 보내져 대구 역사관 건립에 쓰인다. 이날 모인 기부액은 12만4700원으로 판매 수익에서 운영비를 일정 부분 감한 액수이다. 신리나(초등교육학전공 2)씨는 “오늘 모인 기부금은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상처를 공유하는 데 쓰

인다가에 기여이 동참했다”며 “이러한 아름다운 행사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은결(초등실과교육전공 2)씨는 “물품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참여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지 않은 기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체험장 열려

사전투표일은 5월 30·31일



학생들이 학생회관 1층 로비에 마련된 사전투표제 체험장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별도로 회송용 봉투도 받아 기표 후 봉투에 투표

용지를 담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31일이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 후 읍·면·동 사전투표소로 가면 된다. 김보라 기자

도박중독연구센터, 민간 상담기관 선정

도민 3개월간 무료 상담

도박중독연구센터(센터장 김성봉 교육학과 교수)가 ‘민간상담기관’에 선정돼 2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박중독연구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제주 지역의 도박중독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번 없이 1336을 누르면 ‘헬프라인 24’를 통해 24시간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다. 제주도민 모두가 3개월간 무료로 재

상담, 법률상담, 가족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민간상담기관 이용자 만족도 및 치료효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봉 센터장은 “도박중독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기쁘다.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의 기회도 만들고 싶다”며 “이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서운 기자

GTEP, 해외시장개척 출정 1일 경성대 1호관에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GTEP·단장 이용완 무역학과 교수)은 지난 1일 경성대학 1호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출정식’을 열었다. 이용완 GTEP단장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 많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추 수 있다”며 “이 기회를 통해 무역 인력 양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업그레이드’ 교류회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사업화지원 사업단은 13일 제주시연동 롯데시티호텔 4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기술&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는 도내·외 문화관광콘텐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제주 문화소재 스토리텔링 방안과 전략(박기수 한양대 교수)△문화기술+스토리텔링+제주(이병민 건국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열렸다.

이와 함께 도내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 13개 사, 국내·외 유력 바이어 25명과 전시·상담회를 통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뤄졌다. 강경태 기자

‘노란리본 나눠주기’ 열려 학생생활관 자치위 주최

학생생활관 ‘동침’ 자치위원회(위원장 전호광 수의학과 4)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학생생활관 식당 앞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노란 리본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치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학생생활관 입주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란 리본을 나눠줬다. 전호광 자치위원장은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부를 빌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싶었다”며 “진도로 자원봉사를 못하는 대신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와 필요성을 느껴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2014 평화섬 세미나 개최 지난달 29일 국제교류회관서

‘제주4·3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의 전개과정과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을 주제로 한 ‘2014 평화섬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창훈(행정학과)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제주4·3 치유의 청원운동의 과정과 전망에 대해 말했다. 고 교수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국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사과를 해야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적 정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라며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우수기업 탐방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혁신도시 기관·기업체 방문
취업전략본부 컨설팅 병행
유재구 MS이사 강연도



9일 기업탐방에 참가한 학생들이 SK핀크스 포도호텔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는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을 얹혀 취업컨설팅트와의 취업상담이 이뤄졌다. 유동형 취업전략본부 취업컨설팅트는 “다양한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스펙과 스토리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성 취업지원관도 “취업전략본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 관련 정보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했다. 10일에는 박호범 데일카네기연 구소장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강연과 팀별 면접실습이 이뤄졌다. 김새롬(전산통계학과 4)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됐다”며 “막연히 공무원이 돼야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혜영(관광개발학과 3)씨는 “1박2일 동안 유익한 경험을 했다”며 “직접 사람들 앞에서 면접 실습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임재운(통신공학과 교수) 취업전략본부장은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만 선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언제나 적극 환영”이라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안행부 7급 견습시험에 졸업자·재학생 5명 합격



고명수, 이은정, 현수찬, 고가람, 김지현
정치외교학과 졸 행정학과 졸 건축공학전공 졸 관광개발학과 4 분자생명공학전공 4

안행정부의 ‘2014년 지역인재 7급 견습시험 선발시험’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는 고명수(정치외교학과 졸업)씨, 이은정(행정학과 졸업)씨, 현수찬(건축공학전공 졸업)씨, 고가람(관광개발학과 4)씨, 김지현(분자생명공학전공 4)씨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및 공직 충원경로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행 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대학은 올해까지 총 2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3명이 합격한 바 있다. 임재운(통신공학과 교수) 취업전략본부장은 “추천인원의 합격을

을 높이기 위해 매년 취업동아리 중 하나인 견습직원 준비반을 모집해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외국학술지 ‘무료복사’ 지원

2-6일 안에 수령가능

중앙도서관(관장 김홍수 통신공학과 교수)이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의 외국학술지 무료 원문 복사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학술지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된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 학술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복사 서비스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에 가입 후 이용 가

능하다. FRIC 또는 RISS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자료를 검색한 후 자료의 상세정보에서 복사/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복사물은 중앙도서관 2층 대출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복사물 수령은 대략 2-6일이 소요된다. 오안녕 자료관리과 실무관은 원문복사 서비스에 대해 “우리 대학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새로운 책

기업과 지역이 관광경쟁력을 갖추려면?

관광경영전략 | 민간과 공공부문
서용건 지음 | 백산출판사 | 2만5000원

신간 『관광경영전략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난달 출판됐다. 세계관광기구는 2013년 한 해 동안 국제관광객 수가 10억7000여명을 기록했고 2030년 18억명으로 증가하며 관광산업 규모도 연간 6.9%씩 성장해 2030년에는 세계 GDP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광객 수만 본 것으로 국내관광객 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관광과 여행은 우리에게 일상화된 현실이 됐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커지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전략적 마인드를 갖추고 접근하면 성공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책은 학부 및 대학원에서 관광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관광 및 서비스 일선에 있는 경영자들에게 관광경영 전략의 지식과 통찰력을 전달하기 위해 쓰였다.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어 저자가 창안한 서비스 투어리즘 전략의 개념은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한글판과 영문판이 합본된 형태의 스타일도 독특하다. 7가지 전략 유형별로 묶어 놓은 국내외 사례들은 현재 관광기업과 지역들의 생생한 전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저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여가생활: 고품화 사회와 여가의 중요성」, 「Multimethod research on destination image

perception: Jeju standing stones), 「Preferences & trip expenditures - A conjoint analysis of visitors to Seoul, Korea」, 『국제관광 - 경영과 문화』 등 현재까지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펴냈다. 관광정책의 목표는 ‘환경과 문화의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분야 녹색경영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강수빈 기자

행사일정

지형공간정보학과 학술대회 | 토목공학과 | 5월 15-16일 오전 9시 | 국제교류회관
나이트게일 선사식 | 간호학과 | 5월 15일 오전 11시 | 간호대학 2층 강당
아라뽀야제 | 음악학부 | 5월 15일 오후 7시30분 | 아라뽀야제
코체르토의 밤 | 음악학부 | 5월 20일 오후 7시30분 | 아라뽀야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의 인간 열환경 지수

학술기고 인간 열환경 지수(Human thermal sensation)를 이용한 조정계획 및 디자인



박수국
원예환경전공 교수

한여름 뜨거운 태양빛에 갈증이 나면 나무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살을 예닐 듯한 바람이 부는 겨울날에는 삼삼오오 모여 부는 바람 덜 맞고 별이 좋은 공터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뛰어놀았던 어린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주위' 이라 포장하기에도 거추장스러울만큼 일상적인 것이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환경에 적응하고 몸이 쾌적성을 감지하여 적당한 공간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외부요소들이 공간을 열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또는 불쾌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기에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인 요소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공간을 예로 든다면, 도시공간은 보통 이차원적인 지표면을 중심으로 삼차원인 건물 및 인공 구조물과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인 요소들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 복사에너지(solar radiation or shortwave radiation), 지구 복사에너지(terrestrial radiation or longwave radiation)가 있다.

◇인간 에너지 균형 모델

이 기후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도시공간과 인간의 신체와의 열환경적 에너지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을 인간 에너지 균형 모델(human energy balance model) 또는 인간 열 교환 모델(human thermal exchange model)이라고 부른다. 이 모델은 인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공간과의 에너지 흐름을 잠열(latent heat flux density), 현열(sensible heat flux density), 태양 및 지구 복사에너지양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열생리적(thermo-physiological)으로 인체가 느끼게 되는 열환경 지수(human thermal sensation)를 파악하는 것이다. 열환경 지수는 보통 매우 추움, 추움, 쌀쌀함, 중간, 따뜻함, 더움, 매우 더움으로 구분되어 진다. 잠열은 인체와 주위 환경과의 습도의 차이로 발생된다. 인체에서 배출되는 땀이나 습기가 증발하면서, 인체표면이 가지고 있는 열을 증발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용되는 것으로, 여름철 세수를 한 뒤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것도 잠열이 신체에서 주

위 환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열은 인체와 주위 환경과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며,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영향으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현상이다. 풍속은 잠열과 현열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풍속이 강할수록 두 에너지 흐름들이 빠르게 발생된다. 태양 복사에너지는 태양직사광선(direct beam solar radiation), 하늘에 분사된 태양반사광선(diffuse beam solar radiation), 건물 벽이나 수목, 지표면에 반사되어 오는 태양반사광선(reflected solar radiation)이 있다. 여기에서 태양직사광선이 가장 큰 양을 차지하며, 나무그늘이나 건물의 그림자인 음지에 들어갔을 때, 인체가 태양직사광선을 받지 않아 양지보다 훨씬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근접하게 위치한 양지와 음지의 기온차는 실제 없으며, 인체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에너지양에 의해, 느껴지는 열생리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지구 복사에너지는 하늘, 건물 벽, 수목, 지표면 등 모든 지구상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인체에서도 주위 공간으로 방출된다.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이 지구 복사에너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결과, 인체로 유입되는 에너지양이 외부로 누출되는 에너지양보다 더 많으면 인체는 '따뜻하다'거나 '덥다'라는 열생리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며,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쌀쌀하다'거나 '춥다'는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온 기후와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요인들과 합쳐져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인간 열쾌적성(human thermal comfort)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그 도출된 결과는 도시계획/디자인, 조정계획/디자인, 관광산업을 위한 기후(tourism climatology) 분석,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 가능하다.

조정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크게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게 된다. 미적인 면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의 배치와 수목의 크기, 형태, 색과 질감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면은 그 공간의 활용 목적에 맞춰 공간 구성, 동선 연결, 시설 배치,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이나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도시)기후에 대



〈그림 1〉 도시개발계획 및 조정계획에 이용된 창원대학교 캠퍼스 연구 대상지 조성 전(위)·후(아래) 사진. 출처: Daum 지도.



〈그림 2〉 조성 전·후 인간 열환경 지수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를 이용한 시간대별 인간 생명기후지도.

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조정계획이나 디자인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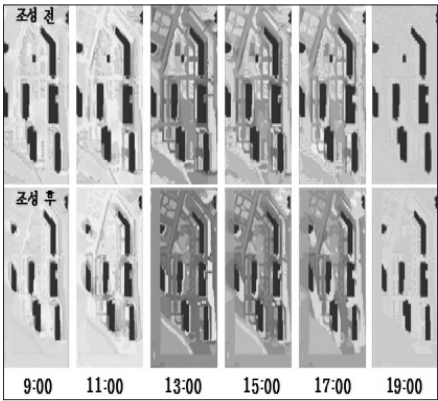
◇조정계획에 적용 되는 기후적 요소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크게 도시열섬현상, 바람길, 수목 및 인공적 재료들에 의한 기온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 열쾌적성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조정계획이나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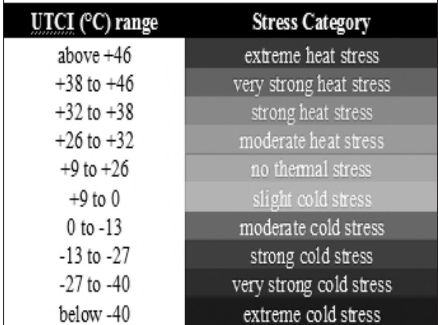
기후적인 요소를 조정계획이나 디자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지역의 스케일(scale)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에서와 같은 큰 공간에서는 분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분석 단위가 좀 더 큰 중기후(meso-climate, 수백m~수십k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예: 도시기후도), 보다 스케일이 작은 일반적인 조정계획에서는 다양한 구성형태들의 분포 밀도를 고려하여 미기후(micro-climate, 1m~수십m)를 기준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조정공간 안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이용자인 인간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기후적으로 쾌적한 조정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복잡한 도시공간에서 열환경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을 삼차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태양 및 지구 복사에너지량 분석을 위해 태양직사광선이 미치는 양지와 음지로 나누어 건물 벽, 수목, 지표면



〈그림 2〉 조성 전·후 인간 열환경 지수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를 이용한 시간대별 인간 생명기후지도.



〈그림 2〉 조성 전·후 인간 열환경 지수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를 이용한 시간대별 인간 생명기후지도.

이 차지하는 공간적 점유율 분석(view factor analysis)을 하여야 하며, 하늘이 차지하는 공간적 점유율(sky view factor), 분석지점에 태양직사광선은 미치는지, 둘러싸고 있는 공간(건물, 지표면 등)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율(albedo)은 얼마인지, 수목인 경우에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율과 투과율(transmissivity)은 얼마인지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요즘에는 삼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많이 이용되어 지고 있으며(예: ENVI-met, RayMan, Human-urban radiation exchange simulation model), 그 열환경 지수 결과들을 토대로 인간 생명기후지도(human bioclimatic map)를 제작하여 도시개발계획 및 조정계획에 이용할 수 있다(그림 1과 2 참조).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열환경 지수를 위해 문제시되는 재료들의 구성과 반사율, 투과율 등을 변환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열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정 식재계획에서 태양 및 지구 복사에너지와 바람에 의한 잠열 및 현열을 잘 조절함으로써, 식재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열환경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방법을 이용하면, 식재공간(정원, 가로수, 근린/국립공원 등)이 도시 열섬 및 도시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 가능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내 식재공간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하고 싶은 책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 불안 ‘존재-당위’ 경계선에서 자아찾기

불안의 개념

키르케고르(임춘갑 옮김) | 차우 | 1만3500원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의 선구자이면서 현대철학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철학자이다. 그는 젊은 시절 부친의 염원에 따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당시 국교화된 덴마크의 가정 목회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자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철학자가 되었다.

그의 저술들은 종교인에게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보였고, 철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기에 그는 평생을 고독하게 보냈다. 사후 100여 년 동안 그의 저작들은 세간에서 잊혔으나, 20세기에 들어 탈리히, 하이데거, 가브리엘 마르셀 등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실존주의의 선구자로서 존중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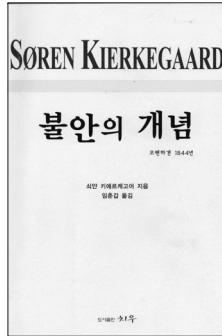
하이데거는 키르케고르를 “당시대의 분위기에 조응하는 유일한 종교적 저술가”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실존주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될 수 있었지만, ‘상황에서 고찰하는 것’,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인 현재’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철학에서 드러나는 현대성의 첫 번째 특징은 ‘개별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안의 개념』이 두 가지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현대인이 가진 정신적인 특성을 ‘불안’으로 통칭하고 이러한 불안을 한 개별자가 지닌 가장 깊은 인간존재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별자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진리인 것은 모든 인류에게 역시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리이다. 현대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든 노이로제나 정신병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불안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불안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불안증, 강박증, 히스테리 신경증, 공포증, 정신체증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면 인격이 파괴되고 마침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의 정



기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충동과 메커니즘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실존적 존재 자체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미국의 정신분석자인 플로 메이는 이러한 사정을 “프로이트는 불안에 관하여 알았고 키에르케고어는 불안 자체를 알았다”라고 요약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키르케고르는 모든 불안한 현상들의 근원이 되는 인간존재의 지반 자체를 곧 불안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비존재(non-being)’의 불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無)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은 삶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불안이기도 한데, 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혹은 일생동안 무가 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다. 불안은 자유를 획득하기 이전에 자유의 가능성으로서의 ‘현기증’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거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할 때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불안이다. 즉 인간은 자유가 가능한 존재이고 창조가 가능한 존재이기에 불안한 존재인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 「원죄라는 교의학적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단순한 연구」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는 이 책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사상을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해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진리, 현대인들의 근원적인 불안의 원인과 해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편의 책을 권하고 싶다.

이명곤
철학과 교수

2013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I. 세입·세출 총괄

■ 세입 (단위: 원)						
학년도	예산액 (A)	전년도 사과이월액(B)	예산현액 (C=A+B)	세입결산액 (D)	세입결산잔액 (E=D-C)	비고
2013	58,040,326,000	2,697,529,130	60,737,855,130	60,794,529,187	56,674,057	• 회비수입 : -11,370,460원 • 이월금 : 27원 • 보조금수입 : -9,560원 • 잡수입 : 82,110,933원 • 수입대체채권 : -14,056,883원
2012	57,908,415,000	5,539,132,180	63,447,547,180	63,293,175,032	-154,372,148	
전년대비 증감	131,911,000	-2,841,603,050	-2,709,692,050	-2,498,645,845	211,064,205	

■ 세출 (단위: 원)						
학년도	예산액 (F)	전년도 사과이월액(G)	예산현액 (H=F+G)	세출결산액 (I)	세출결산잔액 (J=H-I)	세출결산잔액 내역
2013	58,040,326,000	2,697,529,130	60,737,855,130	58,418,201,055	2,319,654,075	• 사과이월 : 970,061,880원 • 명사이월 : 790,248,000원 • 불용액 : 559,346,195원 • 일반운영경비 : 479,024,860원 • 보조금수입액 : 484,740원 • 수입대체채권 : 79,836,595원
2012	57,908,415,000	5,539,132,180	63,447,547,180	59,354,801,875	4,092,745,305	
전년대비 환상	131,911,000	-2,841,603,050	-2,709,692,050	-936,600,820	-1,773,091,230	

■ 이월현황 (단위: 원)				
이월총액 (K) (E+J)	사과이월 (L)	명사이월 (M)	세계잉여금(N=K-L-M)	
2013	2,376,328,132	970,061,880	790,248,000	616,020,252
2012	3,938,373,157	2,697,529,130	347,829,000	893,015,027
전년대비 환상	-1,562,045,025	-1,727,467,250	442,417,000	-276,994,775

2013 이월 현황 세부내역				
• 일반운영경비 : 698,512,950원	• 일반운영경비 : 30,760,000원	• 세입결산잔액 : 56,674,057원	• 세입결산잔액 : 56,674,057원	
• 보조금수입액 : 612,892,000원	• 보조금수입액 : 612,892,000원	• 세출결산잔액 : 559,346,195원	• 세출결산잔액 : 559,346,195원	
• 수입대체채권 : 271,548,930원	• 수입대체채권 : 271,548,930원	• 수입대체채권 : 140,594,000원	• 수입대체채권 : 140,594,000원	

I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사과이월액(B)	예산현액 (C=A+B)	세입결산액 (D)	세입결산잔액 (E=D-C)	주요증감내역
회 비	37,682,237,000		37,682,237,000	37,670,866,540	-11,370,460	• 지체로 인한 등록금 반환으로 회비 수입 감소
이 월 금	904,517,000	114,844,780	1,019,361,780	1,019,361,807	27	
보 조 금	11,041,585,000	2,582,684,350	13,624,269,350	13,624,259,790	-9,560	• 2012학년도 외환은행대환원 체제완화 국고 차입금 과오납 세입금(임정잔액) 반납
잡 수 입	1,455,698,000		1,455,698,000	1,537,808,933	82,110,933	• 사회보험공단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금, 장산환수액 등 증가
소 계	51,084,037,000	2,697,529,130	53,781,566,130	53,852,297,070	70,730,940	
수입대체채권	6,956,289,000		6,956,289,000	6,942,232,117	-14,056,883	• 외국어교육원, 사회과학대학 (영어인강장) 등 세입액 감소
합 계	58,040,326,000	2,697,529,130	60,737,855,130	60,794,529,187	56,674,057	

2. 세출 (예산과목별 총괄)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A)	전입 등 증감액(B)	전년도 사과이월액(C)	예산현액 (D=A+B+C)	결산액 (E)	다입연도 이월액		잔액현액 (H=D+E-F-G)	잔액률 (I=(H-D-E-F)/D, %)	
						사과이월(F)	명사이월(G)			
합 계	45,888,731,000	12,181,595,000	2,697,529,130	60,737,855,130	58,418,201,055	970,061,880	790,248,000	559,346,195	98%	
일반운영경비	38,085,022,000	1,957,430,000	114,844,780	40,157,296,780	39,942,998,970	698,512,950	36,760,000	479,024,860	99%	
[인건비]	16,547,518,000	-631,202,000		15,716,315,970	15,704,318,850			11,997,120	100%	
보 상	3,838,058,000	-56,144,600		3,781,913,400	3,775,163,600			6,749,720	100%	
성 여	269,959,000	-6,628,820		263,330,180	262,330,180			0	100%	
정 액 수 당	181,916,000	17,210,880		199,126,880	199,126,880			0	100%	
초과근무수당	178,445,000	-64,008,480		114,436,510	113,159,440			1,277,070	99%	
수 당	1,387,149,000	139,131,410		1,526,280,410	1,523,703,210			2,577,200	100%	
일 월	14,988,000	23,341,000		38,329,000	38,329,000			0	100%	
정 액 연 구 비	3,403,486,000	45,989,570		3,449,475,570	3,448,086,580			468,990	100%	
행정 관리 비	746,188,000	-336,742,000		409,446,000	409,388,000			56,170	100%	
연구 자 료 비	2,646,638,000	43,782,000		2,690,420,000	2,690,368,780			51,220	100%	
교재 개발 비	811,984,000	-368,768,000		443,216,000	452,725,750			490,250	100%	
교재개발연구비	2,086,051,000	22,866,000		2,088,987,000	2,088,986,100			900	100%	
교육지원활동비	676,795,000	-300,401,000		376,394,000	376,394,000			0	100%	
[운영비]	13,757,536,000	1,214,306,000	25,460,000	14,997,302,000	14,383,668,130	190,142,000	21,760,000	391,731,910	97%	
공공요금및제세	1,838,334,000	167,294,460	9,960,000	2,015,588,460	1,982,480,630	11,642,000		21,456,830	99%	
물	971,280,000	416,977,080		1,388,257,080	1,313,911,710			204,346,370	96%	
회 비	10,050,000	770,000		10,820,000	10,819,530			470	100%	
회 비	38,765,000	5,687,000		44,452,000	43,785,000			667,000	97%	
운 영 수 당	171,319,000	-4,259,000		167,060,000	150,484,200			16,575,800	100%	
일 월	593,675,000	-30,468,000		563,207,000	562,696,900			508,100	100%	
회 비	296,837,000	-3,101,000		293,736,000	293,190,500			545,500	80%	
시설장비유지비	3,526,452,000	136,042,000	9,500,000	3,673,994,000	3,670,486,800			3,508,100	100%	
차량 선박비	42,720,000	-1,163,750		41,556,250	41,555,850			400	100%	
재 료	525,982,000	18,837,750		544,819,750	542,663,540			2,156,210	100%	
학생활동지원비	868,203,000	183,318,000		1,051,521,000	904,149,330			137,371,670	87%	
교육행사지원비	265,606,000	-134,568,000		131,037,300	127,545,900			3,491,400	97%	
적 일	11,502,000	10,258,000		21,760,000	0		21,760,000	0	0%	
국 내 여 비	759,477,000	-18,812,200		740,664,800	748,959,320			66,705,480	91%	
국 외 여 비	72,283,000	21,861,800		94,144,800	147,814,780			277,050	100%	
일반회계운영비	540,000	0		540,000	499,500			50,500	80%	
법무후생비	827,396,000	19,848,500		847,244,500	818,359,640			28,884,860	97%	
복리후생비	543,475,000	-22,821,300		520,653,700	519,971,150			882,550	100%	
연구개발비	2,402,762,000	443,436,000	6,000,000	2,852,198,000	2,842,899,750	178,500,000		30,798,250	99%	
[장사비]	5,479,402,000	527,469,560		6,006,871,560	5,976,000,710			30,870,850	99%	
보 상	5,168,521,000	206,278,810		5,374,799,810	5,366,039,050			8,760,760	100%	
회 비	190,881,000	284,750		191,165,750	189,960,660			3,205,090	98%	
회 비	120,000,000	-29,900,000		90,100,000	93,816,690			22,283,310	94%	
[직접투자장래액]	2,200,564,000	1,136,659,420	89,394,780	3,426,608,200	2,869,011,200	508,370,950	15,000,000	44,992,980	99%	
시 설 비	822,240,000	452,000,000		1,274,240,000	954,133,340	118,752,840		1,358,020	100%	
시설물유지비	28,480,000	182,840,000	89,394,780	300,764,780	150,359,500	145,382,430		4,982,850	100%	
자산취득비	1,549,844,000	502,012,420		2,051,856,420	1,764,518,440	244,265,880	15,000,000	28,082,110	98%	
과년도 지 출	1,000			1,000	0			1,000	0%	
합 지 출	1,000			1,000	0			1,000	0%	
예 비 비		-90,000,000		0	0			10,000,000	0%	
수입대체경비	6,908,709,000	47,589,000		6,956,298,000	6,735,858,450			79,836,550	97%	
[간접비]	2,128,956,000	-109,689,000		2,019,067,000	2,011,037,540			8,029,460	99%	
보 상	723,697,000	10,673,000		734,370,000	733,210,900			1,159,100	100%	
성 여	69,900,000	-1,800,000		68,100,000	67,801,000			0	100%	
정 액 수 당	41,280,000	-310,000		40,970,000	40,970,000			0	100%	
초과근무수당	75,293,000	-20,917,000		54,376,000	53,325,290			1,050,710	97%	
수 당	1,139,004,000	-94,153,000		1,044,851,000	1,039,959,070			4,891,930	100%	
일 월	19,482,000	2,488,000		21,970,000	21,811,280			718,720	100%	
연구자료비	107,600,000	-6,470,000		101,130,000	100,441,000			1,590,000	99%	

다문화수용성은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덕목

기고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와 우리들의 과제



김 정 우
제주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시내 길거리를 농촌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나볼 수 있고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많으면서 다문화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지도 꽤 되고 있다.

◇문화의 개념과 정의

문화(文化)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영어의 경우 문화는 'culture'로 'cultivate(경작하다)'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하듯이 자연에 가해지는 인간의 모든 노력의 결과물, 즉 의식주를 포함한 의생활방식, 생활도구, 지식체계, 가치관, 도덕, 법률, 관습, 신앙, 과학기술, 사상, 예술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이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다문화(多文化·multiculture)란 인종, 민족, 언어, 관습, 성별, 종교, 직업, 계층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조용환 서울대 교수는 다문화가 '다(多)'와 '문화(文化)'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혼하를 다문화가 하나 이상의 많은 문화라는 양적 의미로 오해되고 있지만, 여러 문화의 병존이나 혼합 이상의 상생과 화합의 의미로 다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주가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적,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맞게 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현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단기체류자를 포함해서 160만9670명으로 전년도 대비 9.44%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월 1일 기준 남한의 주민등록인구 5120만2130명의 3.14%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들을 분류하면, 취업자적 이주민 55만 6114명, 단기 체류자 36만1836명, 외국 국적 동포 25만359명, 결혼이민자 15만1439명, 유학생 8만4884명 등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자를 포함

하여 23만1520명, 자녀 16만8583명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2013년 기준 7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증가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약 35만 명, 자녀 약 30만명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약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이전 결혼으로 낳은 본국 거주 자녀를 데려오거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하는 혼혈 중도입국자녀라 부르는 청소년도 급증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 등에 따라 형성된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 곧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같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한국인의 배타성과 차별현상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지만 한국인은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드물어 자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단일민족·순혈주의 신화에 집착해왔기 때문에 현



지난 4월 16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경면 거주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 등은 우리 사회의 차별 현상이 어느 수준 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중요성

이런 상황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2)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데 대한 찬성 비율은 유럽의 18개국 평균이 73.8%에 비해 한국은 그 절반인 36.2%로 조사되었고,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1.17점이었다.

위 보고서에서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앞으로의 과제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인근로자 4461명, 국적 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2423명, 유학생 906명, 외국적 동포 698명, 기타 1566명, 외국인주민 자녀 2358명, 합계 1만265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 전국(2.6%)에서 가장 높고 결혼이민자의 증가율도 전국 평균이 4.9%임에 비해 12.3%로 역시 가장 높게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주민의 증가 상황은 최근에 내국인의 제주 이주 증가와 더불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 특색 있는 시책을 펴간다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졌고,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강원 권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 권역이, 호남/제주 권역이 그 뒤를 잇고 영남 권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상위 20%에 속한 국민의 평균지수는 70.89점이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는 앞으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더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는 흔히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소통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적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정책과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고, 장차 국가와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은 우리 앞에 도래한 다문화 사회를 바로 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앞장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로컬뉴스

8개월간 지속된 ‘소나무 재선충과의 전쟁’ 제주도, 방제작업 성과와 이후 계획 발표



방제대책본부가 재선충에 피해입은 나무를 제거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방제대책본부는 5월 8일 기준으로 총 54만5000여본의 고사목을 제거했으며 전략적인 방제작업으로 산전단 곱술을 비롯한 주요 자연·문화유산지역의 소나무들과 선단지 지역 소나무들의 고사를 최대한 방지했다. 또한 제거한 고사목을 파쇄·소각·훈증, 매몰 하는 등의 사후처리 작업도 완료했다. 방제대책본부는 오는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매개충 활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약 5차례의 항공방제와 수시 지상방제를 실시해 매개충의 활동을 박멸하고 재선충병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억제시킬 계획이다.

그외에도 재선충병 피해지 복원을 위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생명의 숲 살리기' 등의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이번 방제작업의 결과 지난 5월 3일 신원섬 산림청장이 내도하여 헬기를 이용해 제주 전지역에 대한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신 청장은 지난해 11월 헬기에찰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으나 고사목 제거 방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제주도민들의 노력에 깊은 감동과 함께 그간 방제작업장에서 일한 모 든분들께 격려를 전했다.

현을생 도 재선충병 방제대책실무본부장은 “방제작업 지원 요청에 흔쾌히 응하여 준 군 장병과 경찰을 비롯해 금품 기부는 물론 힘든 작업을 자청하고 개인 재산의 피해에도 불평없이 작업로를 내주시 도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급격히 증가했던 고사목 분량들을 제거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이기는 하나 재선충병 방제는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작업을 거쳐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게 목표인만큼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민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방제대책본부는 작년 7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9월 2일 재선충병을 완벽하게 치유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10월에는 한국산림기술협회의 조사 후 방제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복원작업 중에 있다.

재난·안전관리 조례 20일까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 조례」가 지난 4월 2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위임된 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재난유형별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 지정 △재난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 전결사항 △통합지원 회소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도민 및 유관기관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문객 지속적으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도민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 운영 6일째인 5월 3일에 조문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연휴 마지막날인 5월 6일까지 1만5098명이 조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와 자녀 등 3대가 함께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로 1일 최대인 1700명이 조문하여 숙연한 분위기 속에 어린이날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6일 석가탄신일에는 불초행사에 참석했다가 분향소를 찾는 가족단위로 조문 행렬이 이어져 1497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조의록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도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힘을 보태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손수 국화를 준비해 찾아오는가 하면 단원고 학생 언니, 오빠들을 위로하는 마음의 글을 써서 제단에 올리기도 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합동분향소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 등 조문객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조문할 수 있도록 제단 관리와 조문객 안내를 위한 공무원 배치 등 분향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아라초대석 〈5〉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매력적인 제주 농업 연구’ 매진

“제주 농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관광산업과 농업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제주 농업과 깊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승진(59)박사는 말했다.

강 박사가 속한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미래 비전제시와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연구기관이다. 연구원에서 일한지 해수로 10년을 맞는 올해, 그는 큰 선물을 받았다.

바로 그가 연구하던 ‘제주 발담’이 국제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등재된 것이다. 돌을 이용해 밭과 밭 사이에 쌓아놓은 담을 일컫는 ‘발담’은 지난해 1월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강 박사팀의 1년여에 걸친 노력끝에 그 성과를 이룩했다.

“발담의 가치를 나열하자면 발담의 길이 만류이나 긴 논문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화산섬에서 현무암이라는 특별한 돌을 갖고 1천년 이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발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강 박사 또한 무던히 애를 썼다. 물론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에 의해 얻은 성과지만, 주변에서는 강승진 박사의 끈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번은 발담을 평가하러 온 UN대학의 아키라 나카타 교수가 “제주 발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자체만으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강 박사는 나카타 교수가 발담을 두 번째로 보러 오기 전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발담에 출퇴근하며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마침내 나카타 교수가 찾아온 날, 그는 강 박사가 책상에 올려놓은 한 두더기의 자료집을 보고 발담을 인정할 수 밖에 없

었다고 한다.

강 박사가 제주 농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척 간단했다.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농업경제학이라 이후에 농업정책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나가야 할 길은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해야하나요, 그냥 천성연분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는 ‘제주 발담’ 연구외에도 오색(五色)농업을 활용한 제주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 도입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제주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처럼 담과같이 든든한 강 박사에게도 진흙처럼 부드러운 면이 있었다. 가족 애기가 나온 순간, 박사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집안에서는 부당하고 평범한 가정이 되는 그는 지금도 과거의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아내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별볼일 없는 남자가 농업 연구에만 파묻혀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따라 줄 여자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흙에 비료가 더해지면 더욱 영양분이 풍부해지듯, 저에게도 영양분 같은 여자가 찾아왔지 않나.”

결혼 후에는 아내가 육지를 주로 오가며 일을 하게 돼 홀로 부모 역할을 하는 ‘오리 아빠’가 됐다. 연구하랴 출장다니랴 바빠지만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

“농사를 짓는 것을 이론적으로 완벽히 알아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애꿎은 팽이만 두드러듯,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는데, 사계절마다 변하는 흙처럼 내 작물을 키우는 것도 그때그때 맞춰서 변화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승진 박사는 흙과 같다. 한없이 부드럽다가도 필요할때는 돌처럼 딱딱해진다. 제주 농업의 미래라는 씨앗을 품은 강 박사의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강수빈 기자



제주농업을 연구하는 강승진 연구위원(왼쪽),한 겨울에 눈이 쌓인 발담의 모습(오른쪽)

제2회 희망리본사업

참가희망자 모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회 희망리본사업 프로그램 추진과 동시에 참여인원을 올해 말까지 모집한다.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서 저소득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프로그램이다. 희망리본사업 프로그램은 올해 1월 5일부터 희망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180명의 참여인원이 모일 때까지 실시 모집한다.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는 1:1 기초상담을 통해 근로장에 요인과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구직기술 연마, 서비스 연계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경로에 따라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연간 100만원의(식비, 교통비, 교육비)실비 지원과 취업에 성공할 시 이행급여 특례 인정 및 희망키움 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는 146명이었고 그중 98명(67.1%)이 취업에 성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대상자를 집중 모집할 계획이니 새로운 직장에서 새 삶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도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제주자치도가 도민 등을 대상으로 도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집중 제안공모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이번 집중 제안공모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공모대상은 제주내의 도민과 제주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총망라하여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집중공모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잘못된 관행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도민행복을 위한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3.0 실현을 위한 과제 및 사회·생활·산업·교통·어린이 안전과 안전 사회건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공모하고 있다.

제안 방법은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지금의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좋은 정책이나 사례를 활용해 도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후 제안내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및 방문하여 접수를 시키면 된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오승은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한 달이 지났다. 커다란 여객선이 기울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은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탑승자의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던 처음 발표가 반복되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가슴을 졸이며 구조소식을 기다리게 됐다. 희생자의 다수가 어린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도 가라앉은 배 안에서 구출해 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데서 우리 모두가 받은 충격은 실로 컸다.

언론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티비를 켜 수도, 끌 수도 없는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한, 참으로 복잡한 감정속에 지난 시간들이었다. 혹자는 하동거리라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체계를 비난했고, 혹자는 무책임하게 승객들을 버리고 도주한 승무원들을 비난했고, 또 혹자는 어린 생명들을 구해주지 않은 신을 야속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이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일일이 손꼽기도 버거운, 총체적 부실 속에 발생한 일임을 알았고, 오히려 그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매일 매일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한 기억을 떠올렸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인적이 드문 주말의 학교는 조용하게 책을 읽기에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담배 연기 등에 반응해서 오작동을 하는 일이 있었던 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금세 그치리라 생각했던 경보기가 쉬지 않고 오 분 이상을 울려대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연구실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연구실로 다시 돌아와 학교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다. 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였다. 머뭇거리며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밖으로 나갈까요?’ ‘가 볼 테니까 가서보세요’ 십 분쯤 경과하고 나자 경보기소리가 그쳤다. 어느 때처럼 자연히 멈춘 것인지, 당직자가 와서 어떤 조치를 하고 간 것인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 알 수 없었다. 불안해진 마음에 연구실을 나와야 했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제까지 우리 대학의 재난대비 매뉴얼을 본 적이 없으며 안전교육 또한 받아본 적이 없다. 잠깐전대 무엇인가 매뉴얼이 있기는 할 것이고, 소방장비를 비롯한 안전시설이 어딘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 수업 중 갑자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나 또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대피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 있을 때, 나의 연구실 문에는 건물 층의 소화기와 각종 장비의 위치와 대피경로 안내가 붙여져 있었고 연구실에는 재해대비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었다. 아파트 키를 받을 때 관리인이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은 비상시 대피할 사다리를 내리는 법이었다. 매달 한 번씩 가스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점검하기 위해 부재중에는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을 해야 했다.

우리 대학도 재난대비 안전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주지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강의실과 연구실에는 재난발생시에 어디로 신고할지, 어디로 대피할지 등의 간단한 행동요령을 붙여두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에 이미 130만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수천 명의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진도를 찾았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내 일처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분노와 슬픔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 믿는다.

제주를 떠나, 마음껏 도전하라

동문칼럼



이소진
언론홍보학과 02학번
제민일보 기자

저자는 제주 토박이다. 대정에서 태어나 대정초, 대정중, 대정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 출신이다. 말 그대로 제주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제주 촌녀’이다.

그런데 대학 졸업반이던 23살 봄, 서울로 상경했다. 제주도를 벗어나 보자 하는 젊은 피가 뜬금없이 끓어올랐다. 달랑 30만원을 들고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들던 대로 서울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저자의 경우 서울에는 지인도 친척도 없는 그야말로 고아 신세였다. 다행히 다닐만한 직장엔 취직하게 되면서 서울생활에 정을 붙이긴 했지만 원룸, 옥탑방 등을 전전하며 열악한 삶을 이어갔다. 집안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제대로 된 내 집, 방 한 칸이 없이 지냈다. 쌀이 없어 감자를 먹을 때도 있었다. 말 그대로 ‘악’으로 버텼다. 그래도 서울생활을 8년이나 했다. 나름대로 지위나 명예를 얻기도 했다. 사내는 물론 출입처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았다. 타 직장에서도 ‘러브콜’을 종종 받기도 했다.

저자는 지금 ‘어려움을 딛고 서울생활에 성공한 만화주인공 같은 캔디’의 일화를 나열하려고 장황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말 하려하는 것은 서울생활의 ‘현실’이다. 지난해 7월, 화려한 서울생활을 접고 귀향했다. 돌아와 보니, 서울과 제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사람들의 ‘시아’였다. ‘서울물 좀 먹었다’고 빼기거나 티내려는 것이 아니다. 제주에서만 지낸 사람들의 시아와 제주 바깥을 보고 온 사람들의 시아는 확연히 달랐다. 이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일 것이다. 체험이라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행위이다.

지금 저자의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면 ‘제주를 떠나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단 일주일 여행이라도 좋다. 서울도 좋고 해외연수도 좋다. 무조건 나가서 도와 문물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라 말하고 싶다.

단언컨대, 제주 바깥 모습을 체험한 후 독자의 ‘시아’가 한 뼘 더 자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삶에서 ‘시아’는 매우 중요하다. ‘시아’는 ‘사물에 대한 식견이나 사려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세대에 이러한 ‘시아’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환경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정보를 얻는 요즘, 남과 다른 삶을 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노하우 인 것이다.

물론 ‘시아’를 넓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책이나 동영상, 음악 등으로도 시아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간접 경험’일 뿐이다. 직접 체험한 이들과 다르다.

또 하나 조언하고 싶은 것은 ‘준비’다. 저자의 구슬픈 서울생활을 고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집이나 직장, 먹을 것 등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보다는, 내가 닥칠 위기나 어려움을 미리 예상해 보면서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이 좋다. ‘화려한 도시생활’을 꿈꾸었다가 좌절하고 귀향한 젊은이들을 많이 봐왔다.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안다. 그러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상투적인 조언은 하기 싫다.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니까.

다만 ‘더 나은 삶’을 고민한다면 도서관 보다는 바깥세상을 보고 오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복학생들이여, 간절했던 그 마음을 되새기자

독자기고



김석준
언론홍보학과 2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간강한 땀안’을 쉽게 볼 수 있다. 땀안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다. 바로 4인치의 작은 화면에 모든 것을 쏟아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언젠가 우스갯소리가 많이 담긴 카페를 둘러보다 한 게시글을 봤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모이면 서로 대화를 하기 바빴는데 최근에는 서로 만나서도 스마트폰을 하기에 바쁘단 내용이었다. 서글픈 풍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아닐까 했다.

두서없이 말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내가 진정 말하고자 한 바는 ‘복학생’들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나는 2년간 뜻한 바 있어 주변 동기들과 달리 늦게 학교에 돌아왔다. 누군가는 내가 잔적한다며 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복학생 여러분,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군대를 전역하기 이전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에 휩싸인다. 나 또한 2년동안 고생했던게 전부 꿈만 같고, 내일 전쟁이 터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내 머리속을 지배한 가장 큰 생각은 ‘군대를 제대하면 뭘 하고 사나’ 하는 걱정이었다.

아버지 따라서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동기, 집이 장사를 한다고 물려받으면 그만이라는 어린 후임들의 이런 저런 말을 들으며 나는 한가지 결심을 했다. 최소한 하나의 꿈을 정하고 나가서 다툰다.

는 대로 실행해 보자고.

비록 뜻한 바를 모두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시 돌아온 학교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다. 하지만 잠시 주변 동지 ‘복학생’들을 둘러보니 느낌이 묘했다. 마치 전역전의 말년 병장이 작업을 하는 듯 멍한 자세로 수업을 듣는다. 혹은 모 게임의 투명한 유닛처럼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잠을 청한다. 짧은 쉬는시간엔 웅기 쏹기 모여 흰색 연기를 뿜는 주전자가 된다.

그조차도 지루하면 이들은 4인치 화면에 사로잡힌 노예가 된다. 설세없이 울리는 진동, 검은 화면엔 뿜 그리 피울것이 많은지 LED가 사정없이 반짝인다. 수업이 끝나면 이들은 계획했던 학원을 ‘이번 한번’만 남기고 친구들이 모인 PC방과 술집으로 향한다. 그들이 유일하게 켜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폭신한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는 정말 잘할거야’는 생각과 함께 잠이 든다.

물론 모든 복학생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하지만 뒤편에는 뒤편 보인다고 나는 이전에 내 모습을 하고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성공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들에게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뚜렷한 방향과 방법을 논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한때 방황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길을 찾은 사람의 입장으로 할만디 말을 건넬 것이다.

복학생들이여, 그대들이 진정 원했던 삶은 어디있는가. 우리 모두 다시 ‘입대’를 하자. 그리고 가장 각박하면서 간절했던 그 날을 떠올리자. 사회에 나가면 00부터 할거야. 나는 반드시 00이 되고 말거야. 두개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 당시에 우리 머리속에 간절했던 그 목표를 향해 다시금 힘차게 뛰어보자.

학생들을 위한 ‘렌트 자전거’ 어떨까요



임세환
경영학과 1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기 시작한다. 아바 날이 거듭될수록 무더위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업시간에 맞춰 오는 학생들이 정문의 버스마져 놓쳤다면 그들은 땀방울조차 땀이 날 것 같아 망설일지 모른다.

이럴 때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다면 지각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지 않을까.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은 거의 산 수준의 언덕을 자랑하는 등교길에 자전거를 몰고 오기도 버겁다. 이에 자전거를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학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봤다.

우선 첫 번째는 렌트카의 개념을 자전거에 접목시킨 렌트 바이크이다. 학기 초에 학교가 희망자를 조사한 뒤 그 수만큼 자전거를 구입해 한 달만 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 후 자전거를 렌트해 달다. 이어 해당 학생에게 일정 보증금을 받은 뒤 매달 마다 새롭게 수요를 조사한다. 자전거는 학교 정문 근처에 렌트장을 만든 후 보관하면 된다.

이에 자전거 희망자가 줄거나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선 줄어든 때는 여분의 자전거를 대여업체에 한 달간 빌려주거나 그 손익의 30%를 받는다. 수요자가 늘어났다면 그 만큼의 자전거를 추가 구매하면 될

것이다. 현재 알아본 결과 쓸 만한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는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든다고 한다.

두번째 방안은 몇몇 학생들을 모집해 폐자전거를 재활용 하는 방법이다. 얼마전 개인적인 일로 자전거 판매점을 찾아가게 됐다.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장님은 영업비밀이라며 내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줬다. 그분은 아이들을 상대로 폐자전거나 중고자전거를 싸게 구입해 새롭게 리모델링 한 후 다시금 새 자전거의 반 가격으로 재판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잘 접목시키면 환경을 살리는 동시에 공공의 자전거를 다수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전거를 빌린 후에는 사용자가 자전거를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의 수가 늘어난다면 교통은 혼잡해 진다. 이에 이용자가 자전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겹을 먹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 이 전용도로는 현재 도로와 인도를 침범하지 않는 주변 조정지역에 조화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정지역과 자전거 도로의 적절한 조화는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하고 이용자들의 마음을 놓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앞에서 말한 여분의 자전거 해결방안이 하나 추가된다.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놓고 외부인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임대해 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학교를 홍보할 방법도 되고 작지만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장 핵심인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학교당국이 관심을 가져봤으면 한다.

새로나온 책

동기 부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책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비법 답아

나를 이기는 힘
고유붕 지음 | 무한1 | 1만8000원



코칭리더십 강연과 교육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고유붕 코칭리더십개발원 대표가 동기부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나를 이기는 힘』을 펴냈다.

책은 저자가 제민일보에 지난 2012년 11월23일부터 매주 1회씩 ‘소통과 대화의 코칭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재한 것이 바탕이 됐다. 동기부여는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 코드다.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고 배우고 의미 있는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느낌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법과 발상의 전환을 위한 질문법, 행동유형별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법, 소통의 리더십, 화내지 않고 상대방의 결의를 다지게 하는 법,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셀프 코칭법 등에 대해 말한다.

이 방법을 익히고 유연하게 실천함으로써 개인도, 조직도,

리더도 멈추지 않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유붕 전문 코치는 “소통에 막힌 것을 풀어내고 시원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코칭 기법’이라 할 수 있다”며 “코칭은 깊은

사유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전문분야”라고 밝혔다.

지구해양학과 교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코칭리더십개발원 대표로 있으며, 국제코치협회공인 전문코치(PCCC)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바람 속의 돌담』, 『제주도 해양수산사』, 『항해와 표류의 역사(공저)』, 『제주의 바다(공저)』, 『제주도지(공저)』, 『제주도 인류(공저)』, 『해양과 지구환경(번역)』, 『해양개발(공동번역)』, 『해양생물학(공동번역)』등이 있다.

정용복 팀장

말하듯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4·3 이야기
4·3의 발단과 전개, 목소리와 침묵까지 담다

제주4·3을 묻는 너에게
허영선 지음 | 서해문집 | 1만2900원



시인 허영선(제주대 강사)이 2014년 66주기를 맞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4·3사건을 기리며 『제주4·3을 묻는 너에게』를 펴냈다.

이 책은 시인인 지은이가 지극히 쉬운 문체로, 말하듯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4·3이야기다. 하지만 한 자, 한 줄, 한 곡을 허투루 지나치기가 어려운 깊이를 글의 안팎에 담고 있다.

지은이는 4·3의 발단과 전개, 그 끝까지 않은 역사를 섬사람들에게 바작 다가 그들 목소리, 몸짓 심지어 침묵까지도 담아냈다.

저자는 8년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출간돼 일본과 중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제주4·3』에 더해 집단 학살의 증언과, 역사의 혼돈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당한 고통을 증언과 함께 깊이 있게 다뤘다.

또한 강요배 화백의 ‘4·3 연작’ 가운데 여러 작품이 들어있어, 그날의 참혹함과 억울함을 생생하게 더해준다.

하지만 이 책은 그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해 쓰인 것은 아니다. 4·3은 역사이기에 해방 전후의 역사적 상황을 별면으로 붙이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더욱이 온 섬이 학살되려 해도 살려라 해도

나친 말이 아닌 제주의 4·3유적지를 동행하며 ‘그날’을 설명해주는 부록도 책 뒤쪽에 있다.

전 제민일보 편집부국장장과 제주4·3평화재단 이사를 역임한 허영선 시인은 현재 제주 4·3연구소 이사·제주대 강사로 있다.

제주대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 시집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 『뿌리의 노래』, 문화칼럼집 『섬, 기억의 바람』, 역사서 『제주 4·3』, 4·3구술집(구술 정리) 『발레꽃들, 그 감감한 아픔속에서』, 『그늘속의 4·3』(공저), 그림책 『바람을 품은 섬 제주도』, 『워낭소리』 등을 펴냈다.

정용복 팀장

세계를 향한 국내 유일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4학년도 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모 집 학 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 원 자 격	• 전공구분 없음(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등)
원 서 접 수	• 2014. 5. 27(화) 10:00 ~ 5. 30(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면 접 시 험	• 면접고사: 2014. 6. 13(금) 10:00 ~
특 전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유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지급 (유럽 : 알브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미국 : 미정, 일본 : 아사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출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풍력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선 발 방 법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소지자를 우선 선발함)
문 의 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http://gwe.jejunu.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 아라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취재기 <4·끝>

해외봉사단의 숨은 주역들

다낭외대 학생들, 봉사단과 현지주민 통역 도와

메디피스·KOICA, 현지 사정에 맞춘 지식 제공

제주대학교 아라해외봉사단(단장 김성업)은 2월 15일부터 8일간 베트남 광찌성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의료봉사팀과 교육봉사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봉사단을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며 그들의 봉사를 더욱 빛내준 소금 같은 존재들도 많았다.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제4기 아라해외봉사단은 7명의 교수와 21명의 학생(의학전문대학원 소속 13명, 제주대학생 8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봉사단의 일을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12명의 다낭외국어대학교 한국어와 학생들이 있었다. 봉사단원들은 하나같이 이번 해외봉사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들은 다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라 말했다.

학생들은 능숙한 한국어로 봉사단과 현지 주민들 간의 통역을 도왔다. 가끔씩 어려운 의학용어를 통역하기 어려워 찢궂매기도 했지만 결

국 능숙하게 약을 포장해주는 모습은 마치 의사와 다를 바 없었다. 의료봉사팀에 합류해 통역을 도운 후엔 티 김 토하(다낭외국어대학교 2)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지원을 했다”며 “하지만 봉사단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열정, 그리고 순수한 봉사 정신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봉사팀에 속한 한국 의사들이 현지 의사보다 월등한 기술과 지식을 지닌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현지 의사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줬으며, 한 명의 환자를 만나더라도 성심성의껏 진료해 줬다”고 덧붙였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꿈이었던 학생은 그 꿈을 잠시나마 이뤄 행복한 추억을 쌓기도 했다. 50여명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큰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하며 그녀는 방긋 웃었다.

교육봉사팀과 함께하며 통역을

맡은 팜 티 응옥 이엔(다낭외국어대학교 2)씨는 “봉사단원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직접 교사가 돼서 수업을 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언젠가는 내가 한국으로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낭외국어대 학생들이 그림자처럼 봉사단 옆에서 많은 일을 보조했다면, 봉사단과 처음과 끝을 함께한 숨은 조력자들도 있었다. 의료 NGO 단체인 메디피스와 KOICA 단원들은 이번 해외봉사단에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다.

메디피스는 베트남 외교부와와의 마찰 등을 피하고 원활한 행정 처리와 현지 숙소 준비 등으로 봉사단들이 ‘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봉사단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베트남을 몇 번 왕복하며 철저하게 코스를 준비했다. 의료 봉사팀에게 현지에서 구입가능한 약품 등을 알리고, 교육봉사팀에겐 한국에서 미리 갖춰가야 할 장비들을 세세히 전해주는 등 온갖 굵은일을 도맡은 이들이 없었으면 봉사단 또한 큰 수확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메디피스의 윤설희 간사는 “해마다 많은 봉사단이 베트남을 찾지만 현지적응에 문제를 겪는 등 ‘봉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메디피스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얻은 현지 사정과 유용한 지식 등을 제공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중인 KOICA 단원들 또한 봉사단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였다. 능숙한 베트남어 실력으로 인력 한 명이 아쉬운 통역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거나,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교육봉사팀에 합류해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KOICA 측은 정 단원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보면 한국인 봉사단을 만나기만 해도 신난다”며 “그들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힘껏 도와주다보면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 더욱 의미가 깊다”고 웃으며 말했다.

흔히들 리더를 보조하는 ‘어시스턴트’는 빛나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 하곤한다. 하지만 봉사단의 결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는 이들은 봉사단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베트남전쟁, 그리고 한국

베트남전쟁은 ‘30년전쟁’이라고도 부르며 2차 전쟁으로 구분한다. 1차 전쟁은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라고 부르며 1946년부터 1956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프랑스간에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역사학자들이 ‘상처입은 거인’이라 칭



▲봉사를 마친 아라해외봉사단원들이 팔로 하트를 만들며 웃고 있다. ▶응우옌 티 란 엔(다낭외국어대학교 2)씨가 의료봉사팀을 도와 접수대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DMZ 지역의 호치민 박물관 내 부 모습, 베트남전쟁 당시 폭격의 잔해와 전쟁의 참상이 담겨있다(오른쪽).



하는 2차 전쟁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불리며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미국간에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한국 또한 베트남 전쟁에 깊게 관여했다. 1964년 140여명의 비전투 요원을 시작으로 1965년 3월 10일 공병대가 중심이 된 비둘기 부대의 파월. 이듬해 1965년 10월 맹호부대와 해군 청룡부대의 파견에 이어 1966년 백마부대 등 약 30만명의 병력을 베트남전쟁에 파견했다. 베트남의 DMZ지역 부근에는 작은 호치민 박물관 하나가 있다. 내부

에 들어서면 거대한 황금빛을 띄는 호치민 동상이 보인다. 박물관에는 베트남 전쟁시 피해 본 베트남 주민들의 사진과 폭격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 끝까지 미군에 맞서 싸운 베트남 군인들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있다. 이윽고 좀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힘으로 얻은 독립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놓여있다. 글귀는 흐릿하지만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는 베트남인의 끈질긴 독립 정신을 보는 듯 했다.

베트남은 결코 전쟁을 잊으려하지도, 숨기려하지도 않는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만행 또한 마땅히 가질 일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일때 강해지지만, 피의자일때는 한없이 약해진다. 위안부 문제, 한일 합방 등의 문제에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죄없는 베트남 주민들을 학살한 역사적 증거는 나몰라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는것일까. 여행을 마치고 작은 의문이 들었다. 강수빈 기자

>> 아라해외봉사단 활동을 마치며

“제주대만의 창의적인 봉사 찾아야”

제주대학교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그 해 필리핀 카비테 지역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필리핀 일로일로, 라오스의 학사이 마을에 이어 올해 네 번째 봉사활동을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광찌성 지역에서 펼치고 돌아왔다.

제주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지향하고, 의진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를 보유한 종합대학이다. 이에 학교가 가진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 주고, 참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해외봉사 프로그램 또한 시행했다. 학교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봉사활동을 아쉽게 추진했으나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존의 봉사활동 진행시 겪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현지 사정에 밝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NGO 메디피스와 협력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메디피스는 과거 베트남의 휴전선 부근이자 고엽제 문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광찌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디피스와의 협력은 보다 효과적인 활동과 일회성 행사의 한계를 넘고 싶다는 우리 바람의 표현이기도 했다. 제한된 예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떠났어도 봉사활동 후 남은 약품들을



김성업
아라해외봉사단장
의학과 교수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사를 통해 느낀 것은 이런 문제점은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는 단기 봉사활동의 한계점에 있었다. 또 라오스처럼 베트남에서도 언어 소통의 장애로 현지인과 맞닥뜨리고 대화할 수가 없었다는 점은 언어에서도 국제적 기회를 주고자 한 의도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했다.

지난번 라오스에 이어 이번에도 의료봉사팀과 별도로 일반봉사팀이 교육봉사사로 지역 유치원에서 활동했다. 교육봉사는 많은 준비로 무리없이 진행됐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대사협을 포함한 일반 해외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수준을 넘어선, 보다 특성화되고 전공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전부터 논의돼 왔던 프

현지 기관에 기증하고 올 때, 꼭 약이 필요해 보이 지 않는 사 람들을 빈 손 으로 돌려보 낼 수 없 어 비타민제를 처 방 할 때 느 낀 아쉬움 을 해결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사를 통해 느낀 것은 이런 문제점은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는 단기 봉사활동의 한계점에 있었다. 또 라오스처럼 베트남에서도 언어 소통의 장애로 현지인과 맞닥뜨리고 대화할 수가 없었다는 점은 언어에서도 국제적 기회를 주고자 한 의도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했다.

지난번 라오스에 이어 이번에도 의료봉사팀과 별도로 일반봉사팀이 교육봉사사로 지역 유치원에서 활동했다. 교육봉사는 많은 준비로 무리없이 진행됐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대사협을 포함한 일반 해외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수준을 넘어선, 보다 특성화되고 전공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전부터 논의돼 왔던 프

프로그램 공모제를 도입해 학교는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기관부터 시행까지 학생들이 주도해 제주대 학생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 있긴 하지만 네 번의 봉사경험을 통해 먼 남의 이야기같이 느껴지던 해외봉사가 이젠 어엿한 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2백여명의 제주대 학생이 참가했다.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3개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작년엔 진료시 발견한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주대병원으로 데려와 수술 후 완치하여 귀국시킨 일도 있었다.

요즈음 많은 단체나 기업에서도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라해외 봉사단 또한 그저 연례적인 행사로만 그친다면 곧 한계를 맞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제주대만이 더 잘 할 수 있는 봉사 영역과 해외 봉사 지역을 찾기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남을 섬길 줄 아는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제대인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관심과 참여야말로 아라해외봉사단이 지구촌에 꼭 필요한 봉사단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인터뷰 - 양희토아 베트남 전쟁 상이군인

“전쟁은 내 모든 것을 날려버린 악마”

“베트남전쟁은 행복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악마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눈에 띄게 굵은 허리와 몸 곳곳에 남은 흉터는 그가 전쟁동안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줬다.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한 양희토아(70세)씨는 그날의 비극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양희토아씨는 동생 부부와 함께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비록 가난했어도 가정은 화목했다. 하지만 형제가 동시에 군에 소집되면서 자그마한 행복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전쟁중에 무엇보다도 양희토아씨를 괴롭힌 건 모자란 물자였다. 초기에 피박피박 지급되던 배식은 어느새 이들에 한번 꼴로 구경을 하게 됐고 미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이윽고 그는 부대의 명에 따라 ‘여비넷’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윽고 포드기근 했다. 그의 동생 또한 지독한 굶주림과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미군으로 투항했다. “동생을 무척이나 많이 따랐다. 그들은 거짓말을 괴롭힌 건 모자란 물자였다. 초기에 피박피박 지급되던 배식은 어느새 이들에 한번 꼴로 구경을 하게 됐고 미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이윽고 그는 부대의 명에 따라 ‘여비넷’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다.

당시 미군은 미사일을 무제한 폭격을 가동하기 전에 베트남 군인들을 각종 물자와 침자들 을 이용해 포드기근 했다. 그의 동생 또한 지독한 굶주림과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미군으로 투항했다. “동생을 무척이나 많이 따랐다. 그들은 거짓말을 괴롭힌 건 모자란 물자였다. 초기에 피박피박 지급되던 배식은 어느새 이들에 한번 꼴로 구경을 하게 됐고 미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이윽고 그는 부대의 명에 따라 ‘여비넷’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 뒤로는 동생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 왔는데 이젠 동생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모든것을 앗아간 전쟁을 저주하는 늙은 군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강수빈 기자

2014년 영화로 만나는 재일제주인



| 일정 | 5월 20(화) ~ 5월 22일(목)
| 주관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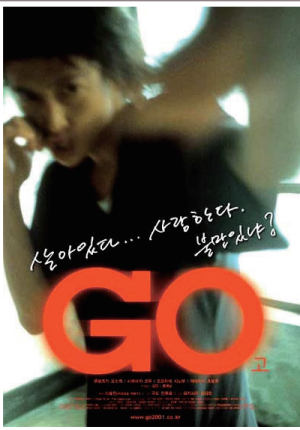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들이 고향 제주에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상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안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편견 등을 반영할 일상의 모습을 이번 영화상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 별도의 참여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상영)

5월 20일(화) 오전11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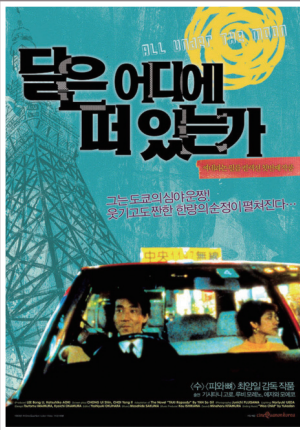


GO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및 편견

2001년 작.
드라마·로맨스·액션
상영시간 : 122분
감독 : 유키사다 이사오
주연 : 쿠보즈카 요스케
원작 : 가네시로 가즈키 <GO>

5월 21일(수) 오후2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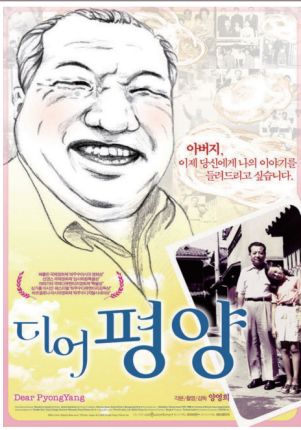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문제

1993년 작.
코미디·드라마
상영시간 : 109분
감독 : 최양일
주연 : 기시타니 고로,
루비 모네로
원작 : 양석일 <택시 광조곡>

5월 22일(목) 오후4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디어 평양
-가족과 조국의 의미

2006년 작.
다큐멘터리·가족
상영시간 : 107분
감독 : 양영희